

# 2025.05.29.(목) Signal Diges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Signal Report'의 축약 버전으로 전달 시간외 특징주와 당일 주요 이슈까지 한 장의 리포트로 제공합니다.

##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원전 #신재생 #바이오 #개별주**

#### **#원전**

#####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AI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대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의 핵에너지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동 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 **관련주: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한전산업, 비에이치아이, 우진, 우리기술,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슈어소프트테크, 금양그린파워, 오르비텍, 우양에이치씨, 한텍, 태웅**

#### **#블랙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 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대명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테스트, 신성이엔지, 국영지앤엠, 대성파인텍, OCI, 도화엔지니어링
- 풍력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동국S&C, 스펜코, 유니슨,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우림피티에스, 포메탈, 서암기계공업, 삼일씨엔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엠텍, 케이피에프, LS마린솔루션, SK이터닉스, 지엔씨에너지

### #생분해 플라스틱 #이재명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외: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 관련주: 세림B&G, 삼릉물산, 씨티케이, 한국팩키지, 무림SP, 무림P&P, 무림페이퍼, 한창제지

### #삼성전기 #유리기판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의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연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 2~3곳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체적 유리기판(글라스 인터포저) 공급망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제품 공급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코어 글라스, 글라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80~90% 유사한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각사의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기의 고객사"라고 설명했다.

- 관련주: 켈트로닉스, 램테크놀러지, 와이씨켄, 필옵틱스, HB테크놀러지, 제이앤티씨, 케이엔제이, 미래컴퍼니, 씨앤지하이테크, 에프엔에스테크, 레이저셀, 한빛레이저, 야스, 기가비스, 아이씨디, 탑엔지니어링, AP시스템, 태성, 인텍플러스, 아바코, 나인테크

### #주요일정

엔비디아 실적발표 (한국시간: AM 6:00 예정)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숨죽인 빅테크 주가...보합권 등락

##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 -거래대금 (단위: 억)

### ●나이백 (NXT)(+25.79%)(424)

나이백, 美기업에 섬유증 치료제 기술이전...약 6000억원 대 빅딜

나이백이 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NP-201'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최대 4억 3500만달러(약 5952억원)에 달하며, 계약 상대방은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다.이번 계약의 파트너는 특발성 폐섬유증(IPF)과 폐동맥 고혈압(PAH) 영역에서 연구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다. 나이백은 이 계약을 통해 NP-201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양도했다.나이백 관계자는 "NP-201의 임상시험 및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물질 공급은 이번 기술이전과는 별도의 공급계약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기술이전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삼성출판사 (NXT)(+17.24%)(149)

[단독]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임박

업계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번주 중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74억원, 영업이익 188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발목을 잡던 해외 자회사를 털어낸 한편 베베핀, 실룩(Sea Look)과 같은 후속 IP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더핑크퐁컴퍼니는 삼성출판사 출신 김민석 대표(18.44%)를 비롯해 삼성출판사(16.77%)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39.80%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는 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의 동생인 김창수 F&F 회장(0.81%)과 차남 김우석 삼성출판사 이사도 포함돼있다. KT도 지분 9.17%를 들고 있다.

###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산업계와 정치권이 국내 생분해 시장 육성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위더스제약 (+5.59%)(27) / JW신약 (+2.99%)(2)

(25.05.28)'탈모 치료' 공약 만지작 소식에 탈모약 개발사 주가 쑥[Why바이오]

(25.05.28)"탈모 건보 확대, 이재명 재가만 남았다"...관련株 들썩[특징주]

### ●온코크로스 (+5.04%)(67)

[특징주] 온코크로스, '피부 접촉없이' 자궁경부 암 조기진단 AI 기술 개발...유일무이 기술력 발표에↑

온코크로스가 그동안 침습적인 조직검사에 의존하고, 진단 정확도가 낮던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던 자궁경부암 진단시장에서 패러다임을 일으킨다. 온코크로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액 내 대사체 정보를 AI로 분석하는 비침습 진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연구 발표를 통해 해당 기술의 임상적 가능성과 차별성을 입증했다.AI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인과 자궁경부암, CIN 환자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대사체를 선별한 이번 연구는 316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암과 CIN 각각에 대해 민감도 94.5%, 95.9%, 특이도 95.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검사 방식 대비 비약적으로 향상된 정확도로, 조기 암 스크리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비큐AI (+2.09%)(8)

퓨리오사AI, JW-코난 AI 넥스트리더 펀드 투자 계약...MDS테크•비큐AI 참여

### ●하이브 (NXT)(-6.97%)(1472)

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천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테마·개별 일정 Check>

△ - 기존 일정

▲ - 추가·수정된 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 / 06.03

△제4회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회의 / 06.02~05

△애플 세계개발자회의(WWDC) / 06.09

△코스피200, 코스닥150 정기변경 / 06.13

△오토매티카 2025 / 06.24~27

△오징어게임 시즌3 공개 / 06.27

## <Signal Digest>

### [주간 일정]

#### 5월 29일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발표★(한국시간: AM 6:00 예정)

과기부, 첨단 휴머노이드로봇 미래선점기술 개발 전략 포럼 개최 보도계획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30일).

GC지놈 공모청약(~30일).

#### 5월 30일 금요일

미국) 4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일, 4차 관세협상

MSCI 한국지수 정기변경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의원단과 한-미 협력방안 논의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2025(~3일).

제21대 대선 사전 투표(~30일).

GC지놈 공모청약(~30일).

### [경제 일반]

코스피, 2,670대로 올라 연고점 경신...코스닥 강보합(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1조2천300억원, 6조5천14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원/달러 환율 7.0원 오른 1,376.5원 마감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2.314%

돌아온 외국인...반도체·원전株 집중 매수

이달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종목은 반도체와 원전 관련주에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000660)로, 1조 4520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005930)를 1조 2630억원 규모로 가장 많이 순매도한 것과 대비된다.

조선株 순항에...HD현대그룹 시가총액 100조원 육박

이재명, 소액주주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사항 필요"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를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예외없이 소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서 세밀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탈법수단으로 회사의 돈, 즉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에 백기사에게 파는 등 처분 지배권이 있는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것도 포함해)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예외사항'을 언급하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기준금리 25bp 인하 예상"...환율 1376원 마감

**[국제-미중패권전쟁]**

미국방 "美, 중국과의 충돌 추구 안해...동맹과 함께 억지할 것"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우리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을 포함해 누구와도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무력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야심이 커졌다"고 진단한 뒤 "이 정부(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등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힘을 통해 평화와 억지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유럽에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하나...업체 불러 정책 설명

중국 정부가 최근 유럽 반도체 공급망 업체들을 불러 모아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한 가운데, 이런 움직임이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영매체 보도가 나왔다. 관영 중국일보는 전날 회의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트럼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에 중국 판매 중지 명령"-FT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전자 설계 자동화(EDA) 기업에 중국에 대한 기술 공급 중지를 명령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칩 설계사와 제조사가 차세대 칩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필수적이어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서한을 받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

트럼프 반도체 디자인 대중 수출 금지, 관련주 10% 폭락(상보).

## [국제-미국]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트레이더들이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주식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요일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분기별 실적을 기다리는 동안 최신 실적 보고서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6포인트(0.3%) 하락했습니다.

신원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Okta 주가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양호한 분기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유지한 후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반면,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크롬비 앤 피치와 디스는 각각 16%,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개장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래픽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에 중국의 제한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1% 상승했습니다.

U.S. Treasury yields: investors monitor U.S.-EU trade talks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美 학자금 대출 연체율 0.8 → 8.0%...경제 발목 잡나

"비자 신청 당분간 안 받습니다"...주한 미대사관 통보에 유학생들 '날벼락'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무부가 유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활동을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7일 외교 전문을 입수해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부하려는 유학생을 상대로 한 비자 심사에 '사상 검증'을 추가하면서, 외국인의 미국 교육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 [국제-유럽]

러 외무 "러·우크라 차기 협상 곧 발표"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서 "우리는 16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내 차별적 법률 폐지를 주장했고, 곧 발표할 다음 직접 협상에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2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관련주:** 대동기어, 대동, SG,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대모, 디와이디, 비에이치아이, 자연과환경, 범양건영, 스펙코, 인디에프, 수산중공업, 서연탐메탈, 대창단조, 동일고무벨트, HD현대건설기계, 신스틸, 한미글로벌, TYM

젤렌스키, 푸틴·트럼프와 3자회담 요구(종합)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푸틴이 양자회담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모두가 3자 회담을 원한다면, 나는 상관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러 "러·우크라 차기 협상 곧 발표...각서 마무리 단계"(종합)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3회 안보문제 담당 국제고위대표 회의에서 "우리는 16일 이스탄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내 차별적 법률 폐지를 주장했고, 곧 발표할 다음 직접 협상에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2차 협상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 "러 원유·우라늄 구입 땀 500% 관세"...제재카드 꺼낸 美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 중이다.

## **[국제-중국]**

### [중국증시-마감] 기업 실적 부진에 소폭 하락

### 中, IT 제조업 고도화 계획 발표...美 제재 맞서 자립화 초점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20쪽 분량의 방안은 일정 규모 이상 IT 제조업체의 핵심 공정 컴퓨터 제어화 비율이 2027년까지 85%를 넘어야 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중국은 또 이를 위해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를 100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방안은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로봇틱스,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등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中, 중동 4개국도 무비자...유럽·동아시아·중남미 이어 확대

## **[국제-그외]**

### [도쿄증시-마감] 40년물 입찰 부진에 상승폭 반납 후 보합

### 일본은행 2024년도 국채 평가손 273조원...역대 최대

일본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도 결산에 따르면 올해 3월말 보유한 국채 잔고(취득가 기준)는 575조9천308억엔(약 5천759조원)이었다.그러나 시가 기준 보유 국채 규모는 547조3천62억엔으로 무려 28조6천246억엔(약 273조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채권 가격은 금리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데, 일본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자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보유 국채의 평가 손실이 커지고 있다.다만 일본은행은 일반적으로 만기 때까지 국채를 보유해 시가 반영을 할 필요는 없는 만큼 평가손실로 인한 부정적 재무 영향이 당장 현실화하는 것은 아니다.

### 日, 美와 관세협상서 "반도체 최대 10조원어치 구매" 제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 정부 관계자는 28일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미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제품을 염두에 두고 최대 1조엔(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수입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원자재]**

### Oil inches rises on supply risks, offset by expected OPEC+ output increase

공급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 OPEC+ 생산량 증가로 상쇄될 전망

### Gold firms as investors buy the dip ahead of Fed's meeting minutes

연준의 회의록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하락을 매수하는 금 회사들

금은 수요일 투자자들이 이전 세션에서 가격이 하락한 후 하락분을 매수하고 시장이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연방 준비 은행의 최근 정책 회의록과 경제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 정부, 내달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실·국장급 참석 고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3~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28일) "앵커리지주 측 초청에 따라 이번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실·국장급에서 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 등 최신 에너지 기술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약 1천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관련주: 한텍, 넥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한선엔지니어링, 디케이락, 성광벤드, 태광, 비엠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우림피티에스, 오리엔탈정공, 일승, SK오션플랜트**

#### **[CO2 / 신재생]**

##### 한수원 원전 계약,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제기..."무산 가능성 낮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체코 공영 라디오주르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현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알라 총리는 "정부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계약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인해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체코가 현재 전력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체코 내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황"며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 간이 아닌 국가 간 사업인 만큼, 정치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서명을 통해 업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코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AI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대비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크 기업들의 핵에너지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용 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 **관련주:** 두산에너지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한전산업, 비에이치아이, 우진, 우리기술,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슈어소프트테크, 금양그린파워, 오르비텍, 우양에이치씨, 한텍, 태웅

####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 "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 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SDN, 대명에너지, 에스에너지, 유니테스트, 신성이엔지, 국영지앤엠, 대성파인텍, OCI, 도화엔지니어링
- **풍력 관련주:** 씨에스윈드, 씨에스베어링, 동국S&C, 스펜코, 유니슨, SK오션플랜트, 세진중공업, 우림피티에스, 포메탈, 서암기계공업, 삼일씨엔에스, 대창솔루션, 삼영엠텍, 케이피에프, LS마린솔루션, SK이터닉스, 지엔씨에너지

####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시간외: **삼릉물산 (+9.98%)(4) / 세림B&G (+9.98%)(0.8) / 에코플라스틱 (+5.12%)(11)**
- **관련주:** 세림B&G, 삼릉물산, 씨티케이, 한국팩키지, 무림SP, 무림P&P, 무림페이퍼, 한창제지

#### 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5%에 거의 근접"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27개국에 제출한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30년이 되면 1990년 대비 순배출량이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3년 예측치였던 51%와 비교하면 향상된 수치다.

#### [미래차]

##### 테슬라-구글, 텍사스서 로봇택시 맞붙는다

테슬라는 다음 달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웨이모는 미국 전역에서 테스트를 확대하고 있다.

거버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테슬라와 웨이모의 서로 다른 자율주행 접근 방식을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스틴 출시를 계기로 로봇택시 분야에서 첫 맞대결이 펼쳐지며, 비즈니스와 경제성이 어떻게 발

전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웨이모는 전용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중앙집중식 접근법을 채택한 반면,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이 탑재된 기존 모델Y 차량을 활용한 분산형 차량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 머스크, 테슬라 로보택시 내달 출시...초반엔 운행 범위 제한(2025.05.21)
- **관련주: 퓨런티어,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라이콤, 에스오에스랩, 모트렉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슈어소프트테크, 이지트로닉스, 포니링크, 시지트로닉스**

"배터리 산업, 中 저가공세에 위기... 한국판 IRA 서둘러야"

'현대차·LG화학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배터리 실증단계 진입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팩토리얼 에너지(Factorial Energy, 이하 팩토리얼)'와 스텔란티스가 전고체 배터리의 차량용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

LG엔솔이 키운 나트륨, '美 최초' 리튬 이온 배터리 플래그십 분리막 공급

현대차 노조 "주4.5일제, 정년연장 해달라"

**[조선 / 해운]**

日정부 '조선업 부활' 주요 정책과제에 넣을 듯

삼성중공업, '에너지 공룡' 골라LNG와 FLNG 건조 계약 눈앞

**[삼성전자 / 반도체]**

NVIDIA Expected to Launch RTX PRO 6000 Special Edition for China's AI Market, Potentially Boosting Future GDDR7 Demand, Says TrendForce

**TrendForce에 따르면 NVIDIA는 중국 AI 시장을 위한 RTX PRO 6000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여 향후 GDDR7 수요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렌드포스(TrendForce)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새로운 미국 수출 제한에 따라 엔비디아의 H20 또는 이와 동등한 메모리 대역폭 또는 인터커넥트 성능을 가진 칩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위해 RTX PRO 6000(구 B40)의 특별 저전력, 다운스케일 버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원래 계획된 HBM 메모리에서 GDDR7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스퀘어, 美 반도체 소재 스타트업에 베팅...하이닉스와 시너지 기대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는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의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연내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사 2~3곳에 샘플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삼성전기는 세종사업장에 유리기판 시제품 생산라인을 구축,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자체적 유리기판(글라스 인터포저) 공급망을 구축 중인 삼성전자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제품 공급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코어 글라스, 글라스 인터포저는 기술적으로 80~90% 유사한 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각사의 역할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기의 고객사"라고 설명했다.

- **관련주: 캄트로닉스, 램테크놀러지, 와이씨캠, 필옵틱스, HB테크놀러지, 제이앤티씨, 케이엔제이, 미래컴퍼니, 씨앤지하이테크, 에프앤에스테크, 레이저셀, 한빛레이저, 야스, 기가비스, 아이씨디, 탑엔지니어링, AP시스템, 태성, 인텍플러스, 아바코, 나인테크**

이종우 "HBM 세정 장비, 10년 전부터 개발 착수...준비된 기업만 성장"

제우스, "우리가 만든 HBM 세정 장비 아톰과 새턴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쓰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시장이 성장한 건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면서 글로벌 메이커들도 뛰어들고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듯합니다."

"기존 실리콘 기판을 대체하는 유리기판과 특정 압력과 온도를 활용해 식각 공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온·고식각률 식각장비(PEP) 등을 개발 중입니다. 업계에선 두 기술의 상용화 시점을 2030년 전후로 보고 있는데요. 2022년과 2024년에 회사 매출은 비슷해도 세부 구성이 다를 정도로 시장 변화가 빠릅니다. 당장은 이 시장이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에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AI/ 로봇]

문제적 거물의 '맞손'...머스크 챗봇 '그록', 텔레그램에 탑재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는 2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텔레그램과 xAI는 10억명이 넘는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그록(Grok)을 배포하고 앱에 통합하기 위한 1년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록은 머스크가 이끄는 AI(인공지능) 기업 xAI의 대화형 AI 챗봇 서비스다. 이번 협력으로 텔레그램은 xAI로부터 총 3억달러(약 4128억원)의 현금과 지분을 받게 되며,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그록 구독료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밝혔다.

- **관련주: 폴라리스오피스, 차이커뮤니케이션, 와이즈버즈, LS ELECTRIC**

##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마켓인]미 국채 토큰 10조원 근접...엔비디아·테슬라 주식 토큰도 나온다

미국 주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미 국채·주식의 '토큰화'가 전통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블랙록과 시큐리타이즈가 공동 발행한 미 국채 토큰 'BUIDL(비들)'은 시장 점유율 40%를 넘기며 급성장 중이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도 토큰화 주식 플랫폼 '엑스스톡(xStocks)' 출시에 나서며 시장 확장에 나섰다.

대선주자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전문가들 "실효성은 글썄"

"클레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장현국의 약속은 넥서스로 이어졌다

## [IP/엔터]

넷마블, 퓨처 게임쇼도 간다...'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트레일러 공개

## [BIO / 의료AI]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 유럽 점유율 4년 만에 5배

나이백,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물질 'NP-201' L/O...'6천억원 규모'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후보물질(개발코드명 NP-201)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수출(L/O)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술수출 계약의 총 규모는 4억3500만달러(약 5953억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800만달러(약 109억원),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은 4억2700만달러(약 5843억원)다.

나이백은 NP-201의 상업화 성공 이후 누적 판매 마일스톤 달성 시 이후 60일 이내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상업화 로열티(경상 기술료)는 N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4%로 설정됐다.

- 시간외: **나이백 (NXT)(+25.79%)(424)**

'치명률 최대 75%'...니파바이러스, 1급 감염병 지정된다

## [정치]

[여론조사] 대선 D-6...이재명 48% 김문수 34% 이준석 10%

이준석, 이재명과 양자대결 격차 5%P...李-金은 6%P 差

민주 "AI 정책수석 신설"...국힘 "4대 성장산업쫓 강화"

사전투표 D-1...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사실상 무산(종합).

6·3 대선 유권자 87% "반드시 투표할 것"...3년전 대선과 비슷

이준석, '여성신체 폭력' 표현에 "사과"..."정당한 질문" 주장도(종합2보).

## [M&A / 주요 공시]

[단독] 방시혁, 투자자에 "상장 안해"...측근 PEF에 지분 팔도록 유도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기업공개(IPO)가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 의장과 PEF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링크솔루션, 청약 경쟁률 1천999대 1...증거금 2조6천억 몰려

한기평, 형지글로벌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하향